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님의 노래 김소월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그리운(화자의 정서, 임의 부재) 우리 님(시적 대상)의 맑은 노래(설명서에는 청각적 심상으로 나옴,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음)는

언제나(불변성) 제(화자, 자신을 낮춤) 가슴(마음, 내면)에 젖어 있어요(님의 노래가 언제나 화자의 마음에 남아 있음, 노래가 젖어 있다는 표현으로 보면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음)

▶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임의 노래

긴(그리움의 크기) 날(님의 부재로 인한 기다림의 시간)을 문밖(님의 부재로 인한 기다림의 공간)에서 서서 들어도(임의 노래를 들음, 그리움)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1연 1행의 변주, 님의 노래는 맑고 고운 속성을 가짐)

[해 지고 저물도록(시간의 경과) 귀에 들려요(그리움)]

밤들고 잠들도록(시간의 경과) 귀에 들려요(그리움)](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화자의 그리움 강조, 종결 어미 '-요' 반복)

▶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 노래가 흔들리다. 공감각적 심상)

내 잠(휴식, 재생의 의미)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그리워하다 잠이 듬)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화자의 외로운 처지, 독수공방)

내 잠은 포스근히(시적 허용) 깊이 들어요(설명서에서는 임의 노래로 위안을 받으며 '포스근히' 잠이 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임의 부재와 '포스근히'가 모순이라면 역설법)

▶ 임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는 안정감

그러나(시상 전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임이 부재하는 현실 인식, 그리움의 이유)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임의 노래, 그리움의 이유,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를 모두 사용하여 그리움을 강조)

▶ 임이 부재하는 현실의 확인

- 김소월, '님의 노래'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전통적, 민요적, 여성적

■ 특징

- ①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② 민요적인 율격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④ 종결 어미 '-요'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 구조

- 1연: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 2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
- 3연: 임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는 안정감
- 4연: 임이 부재하는 현실의 확인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언제나 헤어진 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 안 계신다. 그림다. 임이 같이 있을 때에 불러주던 임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다. 임이 오시기를 긴 날 동안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가 마음속에 저절로 들린다.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린다.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귀에 들린다. 곱게 작아졌다 커졌다 멀어졌다 가깝게 들리는 임의 노랫가락에 나는 깊게 잠이 든다. 임이 안 계신 고적(孤寂)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임의 노랫가락을 들으며 포근하게 잠이 든다. 그러나 자다 깨면 임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린다. 들으면 듣는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다. 그래서 다시 문 밖에 서서 임이 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임의 맑고 고운 노래를 듣는다.

▣ 본문 감상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는 화자가 언제나 그리운 임의 맑은 노래를 잊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리운’은 화자가 현재 임과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맑은 노래’는 임의 인품이나, 임이 하신 말 등으로 임이 화자에게 한 것으로 모든 긍정적인 내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슴’은 ‘마음’을 의미하는 관습적 상징이다. ‘젖어 있어요’는 ‘남아 있다’ 또는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시적으로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 밤 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는 낮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임이 떠오르거나 임을 생각하며 지낸다는 말이다. ‘긴 날’의 ‘날’은 해가 있는 낮을 말한다. ‘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볼 때에 낮이 긴 여름일 가능성이 있고 화자의 심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이 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맑은 노래’는 ‘고운 노래’로 바뀌었다. 이는 ‘님의 노래’의 다른 특성이다. ‘님의 노래’는 ‘맑고 고운’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들려요’는 화자가 의식적으로 ‘님의 노래’를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나고 ‘님의 노래’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는 말이다.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 고적(孤寂)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는 임의 노래를 들으며 혼자 잠을 자도 깊고 포근하게 잠든다는 말이다. ‘고이도 흔들리는’은 임의 노래를 형상화한 것으로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이도’는 ‘곱게’로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흔들리는’은 아기가 잘 잘 수 있게 아기를 흔들어 주거나 아기를 담고 있는 요람을 흔드는 것처럼 화자가 잠을 잘 자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르게 본다면 노래 소리가 작게 또는 크게 또는 멀게 또는 가깝게 바뀌어 가며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들린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적(孤寂)한 잠자리’는 임이 없이 혼자 자는 잠자리를 말한다. ‘포스근히’는 화자가 변용한 시어로 포근함이 스며들어 점점 더 포근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는 잠을 자다 깨면 임의 노래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는 앞의 2, 3연에서 화자가 맑고 고은 '님의 노래'를 가지고 있고 잊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자다 깨면'은 화자의 상태를 말한다. 화자는 '밤'에 '포스근히' 잠을 잔 상태이다. 그러다 잠을 깨면 '님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라고 한다. '잃어버린다'는 '노래'와 같은 무형의 것이 아닌 유형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형의 것은 '잊는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화자는 '님의 노래'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와 '잊고 말아요'를 사용하여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말로 모두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까? 아니다. 하나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자다' 깬 상태에서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비어있어야 이를 찾고 기억하기 위해 화자는 '긴 날'부터 잠들기까지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1연의 '언제나' '가슴에 젖어' 있는 '님의 노래'가 스스로 화자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화자는 매일매일 이렇게 임의 맑고 고은 노래를 들으며 슬픔에 빠지지 않고 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수의 비밀 한용운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나(화자)는 당신(시적 대상)의 옷(화자의 정성, 사랑,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는 소재)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습니다’의 경어체 사용, 대상에 대한 존중의 표시)

심의(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도 짓고 도포(통상에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임을 위한 옷 열거)

짓지 아니한 것(미완성)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옷의 완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

▶ 옷을 지어 놓았으나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미루는 화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음)가 많이 묻었습니다.(그리움 형상화)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 두고 한 까닭입니다.(주머니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다른 이들의 오해) 그러한 비밀(주머니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플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수를 놓으면서 아프고 쓰린 마음을 달랠, 추상적인 대상인 마음을 형상화함),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주머니에 수를 놓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이 회복됨)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임 또는 임과의 만남)이 없습니다.(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남)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능력 부정)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의지 부정) 것입니다(역설적 표현, 옷의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재회를 기약함)

▶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까닭
- 한용운, '수의 비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여성적, 역설적

■ 특징

- ① 경어체의 사용 : '~습니다'의 경어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성스럽고 간곡한 마음을 드러냄
- ②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을 임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 구체화

③ 역설적 표현의 사용

④ 산문적인 운율 : 줄글 형식의 산문시 운율이 나타남

■ '수놓기'의 의미

① 수놓기 : 화자의 아픔을 정화하는 행위. 임을 기다리며 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는 행위

② 수놓기의 완성 : 기다림의 종결을 의미. 그래서 화자는 일부러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음

③ 수의 비밀 : 주머니에 수놓는 것을 완성하지 않는 비밀. 옷을 다 짓지 않는 이유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수(繡)에 담긴 비밀

■ 구조

- 1연: 옷을 지어 놓았으나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미루는 화자
- 2연: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까닭

■ 해제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수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당신'의 옷을 짓되, 그 마지막 과정인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는 것을 가리켜 '수의 비밀'이라 말하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는 까닭에 주머니를 다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히 임의 옷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 둠으로써 임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이 화자의 마음임을 읽을 수 있다. 경어체 서술 형식과 고백의 의도가 잘 어우러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 시인의 상상력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님을 기다리는 과정의 중요함을 제시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의 첫 3행에서 서정적 자아는 님의 옷을 다 지어 놓았다는 것과 아직 짓지 않은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서정적 자아에게 '수 놓기'는 님을 기다리는 한 방법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애정 표시의 객관적 상관물일 수 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님을 위해 수를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 놓기란 서정적 자아가 님을 찾아 가는 행위 곧 시인의 구도적 상상력의 활동 그 자체이다.

만해는 수 놓는 과정을 곧 자신이 시를 써 나가는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수 놓는 바늘'은 작은 주머니 위를 움직이며 자신의 사랑을 참을성 있게 완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 놓는 바늘은 님의 실상을 구현해 나가는 서정적 자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음이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역동적인 완성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 '맑은 노래'와 같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끝부분이다. 시인은 '수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수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첫째,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고, 둘째, 두고 두고 완성하고 싶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왜 그는 수를 짓다가 놓아 두는 것인가. 그것은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 놓기를 완결 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님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다. 그가 이 기다림 곧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한 수 놓기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설령 그가 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결핍의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의 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수 놓는 과정을 통하여 시인의 역동적 상상력과 님을 기다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2 윤사월 박목월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송화가루 날리는(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음)

외딴(외로움의 정서 환기) 봉우리(공간적 배경) - 원경

▶ 외딴 봉우리의 풍경

윤사월(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음) 해 길다(산의 해가 길다는 것은 봄이 완연해졌음을 의미)

피꼬리(봄을 알리는 존재) 울면(눈먼 처녀가 봄을 느끼게 됨) - 원경

▶ 봄을 맞은 피꼬리의 울음

산지기(눈먼 처녀의 아버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존재) 외딴집(외로움의 정서 환기, 세상과 단절된 공간, 눈먼 처녀의 처지)

눈먼(처녀의 처지, 연민의 정서 환기) 처녀사(단절된 공간에서 살고 있음, 시선의 이동) - 근경

▶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

문설주(눈먼 처녀가 있는 공간과 바깥세상의 경계)에 귀대고

엮든고 있다(바깥세상에 대한 처녀의 호기심, 동경, 욕망으로 처녀의 처지와 대비됨) - 근경

▶ 바깥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 박목월, '윤사월'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서경적, 향토적, 낭만적, 민요적

■ 운율 : 3음보를 기반으로 한 7·5조의 민요적 율격

■ 특징

- ① 한국적인 정적미, 애절한 분위기
- ② 간결한 시어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의한 전개
- ④ 민요조의 율격(3음보, 7·5조)

■ 제재 : 봄(초여름) 산 속의 정경

■ 주제 : 외딴 산중의 풍경과 눈먼 처녀의 애뜻한 동경과 그리움

■ 구조

- 1연 : 외딴 봉우리의 풍경
- 2연 : 봄을 맞은 피꼬리의 울음
- 3연 :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
- 4연 : 바깥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 '눈먼 처녀'의 역할

이 시의 핵심적 장면은 3연과 4연의 '외딴 집 /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엇듣'는 장면이다. 산 속에 고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처녀는 안타깝게도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처녀이다. 처녀는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치도 볼 수 없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녀의 행위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애미를 느끼게 하면서도, 자연의 일부가 된 존재를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자연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상상의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 해제

이 작품은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서정과 정감을 탁월한 간결미로 인상 깊게 표현한 작품이다. 봄(또는 초여름) 산의 경관이 서경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눈먼 처녀의 모습에서는 애뜻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조용하고도 쓸쓸한 산중에 꾀꼬리 소리만이 들리고, 눈먼 처녀는 수선스레 나가지도 못하고 숨죽여 그 아름다운 소리만을 엇듣고 있다는 데서, 깊은 산중에 찾아온 늦봄의 이미지와 함께 처녀의 불행한 삶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모티프는 '송학가루'와 '꾀꼬리', 그리고 '눈먼 처녀'이다. 그런데 '송학가루'는 시각적인 것으로 '눈먼 처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 양자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꾀꼬리'의 울음소리이다. '눈먼 처녀'는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의해서만 윤사월의 무르익은 정경 속에 용해될 수 있기에, 꾀꼬리의 울음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시인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절제된 언어에 의한 간결하고 깨끗한 인상을 잘 살려 주고 있다. 또한 인상적 묘사 방식에 의한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경시의 특성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 이해와 감상

박목월의 초기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민요풍의 서정시이다. 초여름의 산경(山景)을 배경으로 눈먼 처녀의 애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는 꾀꼬리가 한 마리 나오고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꾀꼬리는 울고 눈먼 처녀는 엇듣고 있다. 그 처녀는 눈이 멀었고, 산지기의 딸이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은 안으로 안으로만 뭉쳐지고 피땀하게 우는 꾀꼬리 울음에서 언뜻 제 설움을 발견하게 된다. 처녀는 바깥의 아름다운 세상이 무척이나 그림자다. 그러나 처녀의 이 그리움과 욕구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설주에 기대어 그 아름다운 세계의 소리나마 엇듣고자 한다. 여기에서 꾀꼬리의 "울음-한"과 눈먼 처녀의 그것은 하나를 이루고, 거꾸로 "외딴 봉우리-외딴 집"의 외로움으로 되돌아간다. 한국 여성의 한과 설움의 결정을 맛보게 하는 작품이다.

또한 이 시는 극도의 회화적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전반부는 커다란 화면 구조 속에서 제시되고 후반부는 눈먼 처녀의 모습을 또렷하게 확대하여 보여준다. 외딴 봉우리, 외딴 집, 눈먼 처녀로 이어지는 공간적 이미지는 고독감과 애절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결국 <윤사월>은 간절한 삶의 충동이 펼쳐질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 눈먼 처녀의 그리움이 한가로운 산 속의 풍경과 미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함축성 있게 그려진, 토속적 서정을 탁월하게 표현한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2 자화상 운동주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자아성찰의 매개체/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매개체)**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객관적 성찰/ 관념적 행위(성찰)**을 구체적으로 표현)

▶ 우물을 찾아가 성찰을 시작함.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공감각(촉각의 시각화) 파아란 : 시적허용)**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열거,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 = 이상향↔'한 사나이'(초라한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

▶ 우물 속 평온한 풍경

그리고 **한 사나이(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현실적 자아, 부정적 자아 / 화자의 객관화)**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평화로운 풍경에 안주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미움)** 돌아갑니다.

▶ 우물 속 평온한 풍경 속 자신에 대한 미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식민지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연민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애증의 교차)**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순수한 본래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 자신에 대한 애증과 내적 갈등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공감각적 심상)**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우물 속에 비친 현실적 자아에서 이상적 자아를 발견(두 자아간의 화해)**)

▶ 추억 속 자신의 모습

- 운동주, '자화상'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고백적

■ 어조 : 고백적 어조('-습니다')

■ 특징

① 평이한 구어체 사용

② 산문적 표현

■ 제재 : 우물 속의 자아

■ 주제 :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 구조

▪ 1연: 우물을 찾아가 성찰을 시작함.

- 2연: 우물 속 평온한 풍경
- 3연 : 우물 속 평온한 풍경 속 자신에 대한 미움
- 4연 : 자신에 대한 연민
- 5연 : 자신에 대한 애증과 내적 갈등
- 6연 : 추억 속 자신의 모습

■ 경향 : 나르시시즘적(的)-나르시스가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여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와 맥이 통한다. 즉,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하여 쓰인 것이다.

■ 화자의 심리 변화 : 미움 → 가없음 → 미움 → 그리움

▣ 이해와 감상1

1939년 9월에 지은 것으로, 운동주는 당시 연희전문 재학시절이었다. 이 시는 나르시스가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여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와 맥이 통한다. 즉,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하여 씌어진 것이다. 이 시에는 우물 속의 '사나이'가 등장하고 그를 들여다보는 '나'가 있다. 이 둘은 양분된 자아로서 부정(否定)과 긍정(肯定)을 거듭하다가 화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변증법적 구조다.

산문시의 부드러운 수사(修辭) 속에 비교적 행복한 자기 몰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애증(愛憎)을 통하여 식민지 아들의 슬픔을 연연하게 부각시켜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는 점일 것이다.

'우물'은 운동주의 시에 자주 나오는 '거울'이나 '하늘'처럼 내 모습이나 생활을 성찰하는 매체이며 밀실의 심상도 포함되어 있다.

▣ 이해와 감상2

운동주의 시는 일제 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무장 독립 투쟁에 가담하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자신을 끝없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성찰의 과정에서 쓰인 고독과 내면 성찰의 시이다. 운동주 시의 주제인 부끄러움과 성찰, 도덕적 순결성 등은 모두 시대의 암울함이 개인에게 가한 무게와 고통의 시적 표출이다. 1939년에 쓰인 이 시에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느끼는 젊은 시인의 자기 연민과 미움이 나타나 있다.

화자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행위이다. 우물이란 그 안에 담긴 물을 들여다보는 이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물의 집으로서 우물 밖과는 분리된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우물 속에는 현실이 되 비친 새로운 사물들이 있고 그 새로움에 맞는 새로운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다.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자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흘러 가버린 과거와 과거의 자신이 혹은 전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 있다 떠오를 수도 있다.

화자가 들여다보는 우물 속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는 곳으로 얼핏 보면 매우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나이' 즉,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는 화자에게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던 자신의 미운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돌아간

다. 가다 생각하니 그 미운 사나이가 '가연어' 돌아오게 되고 다시 '미워져' 돌아가다가 '그리워'져 다시 돌아오게 된다. 화자는 자신에게 미움을 느끼고 그 미움은 연민으로 연민은 그리움으로 변하는데, 이런 변화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감정이며, 도덕적 순결성으로 자신을 성찰할 때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운동주 시에 많이 나타나는 부끄러움은 '미움'으로, 미움이 심해질 때 그 반작용으로 연민이 생기고, 연민은 다시 부끄러움인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본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진정한 성찰자의 모습인 '그리움'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물 속은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가을'이 있는 또 다른 세계이고 그 안에는 '추억'이라는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화자의 진정한 성찰과 인간적 고뇌 속에 존재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3

전 6연으로 된 이 시는 산문처럼 쓴 자유시다. 제 1연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나'는 논가 외딴 우물을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본다. '외딴', '홀로', '가만히'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물'은 거울의 심상과 통한다.

제 2연은 우물 속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달, 구름, 하늘, 바람 등 자연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 전개된다. 이 자연의 묘사는 나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파아란 바람'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제 3연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사나이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고와 보일 리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미워져 우물을 떠나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 혐오(厭惡)다.

제 4연은 그러나 돌아가다 생각하니 이러한 자신이 가연어진다. 자기 연민(憐憫)이다. 그래서 다시 가서 들여다본다.

제 5연은 들여다보니까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진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이 교차한다. 여기서 '미워지는' 것은 무기력하게 좁은 공간에서 안이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자신이 밉다는 것이고, '그리워진다'는 것은 순수하게 살던 옛날의 자신의 모습, 또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진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다. 다음 연에 나오는 '추억'이라는 말과 관련이 된다.

제6연은 우물 속의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하고 그 곳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했다. 즉, 이상(理想)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정(想定)해 본 것이다. 두 자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장면이다. '추억(追憶)'은 그리움이나 동경(憧憬)의 뜻과 통한다.

운동주는 유년 시절을 항상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그리워했다. 그의 다른 시 <별 헤는 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시대 상황의 고뇌를 겪으면서 현재 자신의 생활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았다. 이런 두 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미워도 하고 그리워도 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이 시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3
두보나 이백같이 백석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시적 상황, 음력 1월 15일,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다' 반복)
대보름 명절인데(가족들이 모이는 시간, 공동체적 삶,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나(화자)는 멀리 고향을 나서(고향을 떠남) 남의 나라(타국) 쓸쓸한 객고(화자의 정서)에 있는 신세로다(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白)(당나라의 시인)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화자가 중국에 있음)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화자가 현재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을 '두보나 이백'을 떠올리고 있음)
▶ 1-5행 : 대보름 명절에 객지에서 쓸쓸함을 느낌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가정)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고향에서 대보름을 맞는 모습)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기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공동체적 삶이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현재의 처지와 대비)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현재 화자의 초라하고 쓸쓸한 처지)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가 드러남)
▶ 6-10행 : 고향 집에서 명절을 보냈던 과거 추억을 현재와 대비함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4행의 변주)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두보와 이백의 삶에 투영함)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같은 고향 출신 또는 조선인)의 조그마한 가업집(길가에 있는 가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고향 또는 조선의 음식)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타향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우리네 조상들이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대보름)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4행의 변주)
이날(대보름 명절)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 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떡국과 같은 의미) 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외로움과 쓸쓸함을 해소하려는 자신의 행동과 두보와 이백의 행동을 상상하여 연결함)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두보와 이백, 고결한 정신)
먼 훗날 그들의 먼 후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대보름 명절)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두보나 이백이, 자신들의 후손들도, 자신들과

같이 타관에서 외로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떡국 :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면서 화자에게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함)

▶ 11-25행 :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와 연결함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타국의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음성 상징어)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뽕뽕(음성 상징어) 높아서(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화자가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자신과 동질적인 대상을 향해 상상적으로 투영하고 있음]

아무려나 이것(화자가 타향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옛 투(두보나 이백)의 쓸쓸한 마음이다

▶ 11-25행 : 시인들과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떠올림

-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 역병 : 매우 많이.

* 반관 : 작은 중국 식당

* 원소 :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 느꾸어 :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뜻의 평북 방언.

* 오독독이 : 오독도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떨어진다.

* 호궁 : 중국의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하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서정적, 애상적, 사실적

■ 어조 : 쓸쓸하면서도 그리움이 느껴지는 어조

■ 특징

- ① 화자의 처지를 두보와 이백과 비교하고 거리의 풍경과는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법과 설의법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정적 상황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제재 : 타향에서 맞는 정월 대보름

■ 주제 : 타향에서 느끼는 쓸쓸함

■ 구조

- 1-5행 : 대보름 명절에 객지에서 쓸쓸함을 느낌.
- 6-10행 : 고향 집에서 명절을 보냈던 과거 추억을 현재와 대비함.
- 11-25행 :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와 연결함.

- 26-30행 : 시인들과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떠올림.

▣ 해제

이 작품은 시인 백석이 정월 대보름 명절을 중국 땅에서 맞이하는 감회를 읊은 시이다. 명절날 타국에 홀로 있는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쓸쓸하고 비참한 처지를 두보나 이백의 경험과 대응시켜 일반화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백석(1912~1995)의 시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는 시인 백석이 정월 대보름 명절을 중국 땅에서 맞이하는 감회를 읊은 시이다. 개인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에도 명절에 혼자 있기는 쓸쓸하기 마련인데 1940년대의 가족과 마을 사람, 친족 중심이었던 시절에 타국에서 혼자 명절을 맞이하는 시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해진다. 원래 음력 선달 그믐날부터 정월 대보름날까지는 전통적으로 마을마다 부정 타지 않도록 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다. 세 가지 부정이 있는데 마을에 이방인이 오거나, 여자가 아기를 낳거나 사람이 죽으면 그 해는 정월 대보름 축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축제 이전의 마을은 피 부정이나 낯선 이의 침입이나 죽음을 맞는 등을 부정을 피하고 축제 이전의 고요한 상태로 금기를 지키고 난 뒤에는 마음껏 쇠소리를 내고 난장을 벌였다. 정월 대보름날은 마을 사람들이 팽과리 소리를 내며 즐기고 새벽에 귀밝이술을 마시고 부럼을 깨물며 약밥, 오곡밥 따위를 먹는 등의 축제를 벌였다. 지금도 동해안이나 남해안 등의 시골이나 각지의 국사당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기하여 무당들의 굿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대단한 집단적인 축제의 날에 타국에 홀로 있는 시인의 심정은 다음과 같은 대립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고향(과거)	타관(현재)
친척과 가족	외롭고 쓸쓸한 처지
새옷, 새신을 신다	때 묻은 곳을 입다.
떡, 고기를 억병으로 먹다	마름 물고기 한 토막을 먹다

말하는 이는 명절날 타관에서 혼자 보내는 자신을 쓸쓸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두보(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712~770).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공부(工部)노두(老杜). 율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다. '시성(詩聖)'으로 불리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힌다. 작품에 <북정(北征)>, <병거행(兵車行)> 따위가 있다.)와 이백(중국 당나라의 시인(701~762).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젊어서 여러 나라에 만유(漫遊)하고, 뒤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안사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다. 칠언 절구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현종과 양귀비의 모란연(牧丹宴)에서 취중에 <청평조(淸平調)> 3수를 지은 이야기가 유명하다.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으로 칭하여진다. 시문집에 《이태백시집》 30권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인용)과 대응하여 비교한다.

중국의 시인, 두보와 이백	조선의 시인, 백석
중국 땅	중국 땅
타향살이의 시가 많다	타향살이의 시가 많다

백석 자신이나 두보나 이백, 세 사람 다 시인이고, 중국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시를 많이 썼다는 등의 공통점에서 두보나 이백과 자신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 두보나 이백이 중국 사람이어서 타향에서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원소라는 떡을 먹으며 고향을 그렸다면 조선인인 백석 자신은 고향 사람의 가업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떡국을 먹으며 고향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석은 정월 대보름날 타향살이를 하는 조선의 시인인 자신을 신세 한탄으로 끝맺지 않고 중국의 두보나 이백처럼 고고하고 품격 있는 시인과 동급으로 끌어올렸다. 명절날 객고를 느끼는 두보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다.

중양절에 홀로/ 술을 마신다/ 병든 몸 이끌고/강 위의 누대에도 올라본다
 죽엽주(竹葉酒) 이 좋은 술도/ 이제 그만 마시자/ 꺾어 놓을 국화꽃도/ 다 소용없다/
 타향살이 저문 날에/ 원숭이는 울어쌍고/서리 내릴 날 아직 멀었는데도/
 고향의 흰기러기가 날아온다/ 아우와 여동생들은/
 지금은 어디 사는지/ 다 늙은 몸 이 전쟁통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중양절」(2수), 정양, 박완식 번역, 이회출판사, 1996)

이들 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백석이 명절날 타관에서 떡국을 먹으며 고향과 조상을 생각하듯이 두보도 명절날 타관에서 전통적인 원소라는 떡을 먹으며 고향과 가족을 생각할 것이라는 전통이 이어져 오는 원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명절이 갖는 원형적인 풍습이 한 가족과 한 민족을 묶어 주는 질긴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3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정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무덤(죽음과 소멸의 이미지 환기)에 잠드신 어머니는(그리움의 대상)
선산 뒤에 큰 여백(어머니의 부재를 추억과 위로라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임)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반복)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시공간적 배경)
적송밭 그 여백 아래(어머니의 무덤가)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도시에서부터 따라온 시름과 번뇌)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온갖 잔소리들이 사라짐을 시각화함)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활유법)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역설적 표현, 온갖 번뇌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백을 만들어냄)
막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다시 사라지는 온갖 잔소리들)
▶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위안을 얻음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어머니의 부재 뒤에 느끼는 추억)이여 뒤안길(추억)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역설적 표현)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비유, 화자의 깨달음)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역설적 표현, 부재가 소멸이 아닌 새로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깨달음, 순환론적 세계관)
▶ 여백의 의미에 대해 깨달음
나(화자)도 너(칭자, 독자)로부터 사라지는 날(소멸의 이미지)
내 마음의 잡초(시름, 번뇌) 다 스러진 뒤(소멸의 이미지)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직유),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음성 상징어)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직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화자의 소망, 노을과 시냇물과 같이 누군가에게 위안이나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음)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함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서정적, 관념적, 추상적, 성찰적
- 어조 : 쓸쓸하면서도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
- 특징
 - ① 부재를 여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냄
 - ② 부재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
 -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 화자의 깨달음과 정서를 강조함
 - ④ 비슷한 구절의 반복과 각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제재 : 어머니의 부재
- 주제 : 부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구조
 - 1연 :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위안을 얻음
 - 2연 : 여백의 의미에 대해 깨달음
 - 3연 :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함

▣ 해제

이 시는 독백체로 되어 있다.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서울의 온갖 잔소리를 잊는다.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더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무덤 속에 누운 어머니의 무언(無言). 그 여백이 화자에게는 큰 가르침이 된다. 공간에는 포용력 있는 사랑이 가득하다. 어머니의 부재와 나의 부재가 너에게 여백이 된다.

▣ 이해와 감상

고정희 시인은 미래를 열고 세상을 품는 것은 여성이라고 역설한다. 이때 '여성'은 모든 억압을 초월한 '모성(어머니)'으로 나타난다. 시인은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었듯, 더 나아가 내가 너에게 해 주듯, 모든 존재가 모성(母性)과 같은 포용성('큰 여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 혹은 '내 마음의 잡초'와 같은 세상의 갈등과 화해하기를 노래한다.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이 대립과 갈등을 사랑으로 보듬어 내는데, 이때 '어머니'는 '부재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이 시는 부재하는 대상이 만들어 낸 여백을 통한 새로운 창조(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 시에 나타난 '어머니'는 인간이 포용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구함을 구체화한 것인 동시에,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아우르는 조화로운 인간의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꽃 이육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동방(우리나라)은 하늘도 다 끝나고(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비 한 방울 나리잖는(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그 땅에도(우리나라, 절망적 공간)
 오히려 꽃(생명과 희망, 저항 의지, 강한 생명력)은 발각게 피지 않는가(역설법, '꽃'의 강한 생명력)
 내 목숨(개인적 안위)을 꾸며(꿈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영탄법, 의지 강조)
 ▶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눈 속 깊이(절망적 현실, 한계 상황) 꽃맹아리가 움작거리(생명과 희망, 저항 의지, 강한 생명력)
제비 떼(봄, 희망, 밝은 미래)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봄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희망이 올 것에 대한 확신)
 ▶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한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광복의 환희가 역동적으로 용솨음치는 미래의 조국)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희망의 미래)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광복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
 오늘 내 여기서(희망의 미래가 반드시 올 곳으로 현재는 절망적 공간) 너를 불러 보노라(영탄법, 의지 강조)
 ▶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이육사, '꽃'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 어조 :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 특징
 - ① 상징에 의한 암시적 표현
 - ② 자연 현상을 인간사에 적용하여 시상을 전개
 - ③ 선경후정의 한시 구조가 엿보이며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짐
 - ④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 사용
 - ⑤ 극한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강한 의지 강조
- 제재 : 꽃
- 주제 :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
- 구조
 - 1연 :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꽃
 - 2연 :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 3연 :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해제

첫머리에 나오는 '동방(東方)'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때'는 혹독한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1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라는 혹독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놓여 있다는 시인의 인식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극한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빨갭게 피는 그 꽃은 이런 희망을 의미할 것이므로. 이 희망은 사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의지(그리고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라고 말하고 있다. '꿈을 꾸며'라는 표현 대신 '내 목숨을 꾸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해방을 꿈꾸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2연에서 시인은 이런 희망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찬 새벽 툄드라에 쌓인 눈 밑이 상징하는 극한 상황에도 희망(꽃맹아리)이 살아 있으며, '꽃맹아리'들이 기다리는 제비 떼 가득한 봄은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제비 떼가 날아오는 계절인 봄은 물론 해방의 날을 상징한다.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시인은 3연에서, 미래에 반드시 올 그날의 감격을 미리 만끽하고 있다. 바다 한 가운데서 용솨음치는 물결은 우리 민족이 가지게 될 역동성을 의미할 것이며, '꽃 성'은 소망이 실현된 해방의 날을 의미할 것이다. 1연의 '꽃'이나 2연의 '꽃맹아리'가 해방의 날에 대한 희망이라면, 그 꽃이 성을 이루었다는 것은 희망의 실현, 즉 해방을 상징하지 않겠는가? 이 '꽃 성' 속에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해방을 맞아 일제 강점하의 현재를 돌아보며 감격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에 나타나듯, 시인은 미래의 그 날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보며 벅찬 희망에 잠기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흔히 <절정>과 비교되곤 한다. 서정적 자아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서 시상을 열었다는 점,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높이를 제시했다는 점 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1연의 1행과 2행은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하늘도 다'의 '도'와 '다', 그리고 '한 방울'은 그 상황의 절박함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하늘도 끝났다는 것은 '땅'도 끝났다는 의미이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끝난 것이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현실의 은유다. 그러나 서정적 자아는 부사어 '오히려'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해 놓는다. 현실이 가혹할수록 그 현실과는 반대로 꽃이, 그것도 '빨갭게' 피어난다고 그는 믿는다. 3행의 의문문은 이러한 신념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다. 그는 꽃이 빨갭게 피어날 때까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을 보내겠다고 외친다.

2연도 1연과 시행 배열이 유사하다. '북쪽 툄드라의 찬 새벽'과 '눈 속 깊이'역시 거친 현실의 은유다. 하지만 서정적 자아는 그 가혹한 환경보다는 '꽃맹아리가 움작'거리는 데 주목한다. 미약하게나마 움작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머지않아 봄이 되면 제기가 때를 지어 날아올 곳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우연이나 예외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즉 봄이 되면 언제나, 반드시 제비 떼가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법이다. 서정적 자아는 그 일에 관한 자기 신념을 영탄조로 고백하는데, 부사어 '마침내'는 그 신념의 견고함을 절실하게 드러낸다.

1연과 2연에서 제시되었던 가혹한 환경을 디디고 피어난 꽃은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용솨음치는 물결처럼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의 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서정적 자아는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움작거

린 꽃망아리가 빨갭게 피어나서 온 세상을 뒤덮은 날을 역동적으로 제시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이 되면 서정적 자아는 자기 이웃들과 함께 현재의 고달팠던 삶을 회상하며 기뻐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회상의 무리들'은 특정한 미래의 어느 날 현재를 돌이켜보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소망이 한낱 공상에 그칠 거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그날은 도저히 안 올 것 같지 않은가. 서정적 자아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빈정거림, 나약함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오늘 내 여기서'라고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투박하게 말한다면 이 시는 '비가 안 내려도 꽃이 피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여기에서, 빨갭게 핀 꽃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할, 너를 불러 보는 거야'라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시적 자아는 현재에 이미 미래에 대한 신념,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엄숙한 느낌을 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각 연을 똑같이 4행씩 배열하여 반복함으로써 이 작품은 주제를 한결 강렬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각 연에서 1행보다 2행이, 2행보다 3행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짐에 따라 호흡이 점점 빨라지는 특성을 지녔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4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한겨울 못 잊을 사람(사랑하는 사람)하고

한계령(사랑과 운명의 공간)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사랑하는 사람과 둘만 고립되어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소망, 역설적)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원관념: 폭설- 폭설에 대한 화자의 인식, 긍정적)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활유법)

제 구멍들(목적지)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한계(寒溪)를 한계(限界)로 생각함. 언어유희, 세상을 잊고 연인과 지내고 싶은 마음)

▶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

오오(영탄법), 눈부신 고립(역설법)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고립의 상황을 아름답게 표현)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물리적 고립을 넘어선 운명적 사랑에 대한 간절함)

▶ 운명적 고립에 대한 소망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고립으로 인한 현실적 두려움)

헬리콥터(구원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사랑하는 사람과의 운명적 고립에 대한 간구, 고립을 원하는 역설적인 마음)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헬리콥터의 긍정적인 기능, 산 생명을 구조하는 도구)

▶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고립에 대한 의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헬리콥터의 부정적인 기능,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전쟁터: 헬리콥터-살상의 도구 ↔ 산 생명을 구조하는 도구)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헬리콥터의 긍정적인 기능, 산 생명을 구조하는 도구)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생존에 대한 절박함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운명적 고립을 택하고 싶은 간절함, 변주)

▶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고립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

아름다운 한계령(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고립된 곳)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는 것을 행복하게 인식함, 사랑의 간절함)

▶ 사랑하는 이와와 고립은 축복이라는 역설적 인식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역설적, 낭만적, 의지적, 감각적

■ 어조 : 독백적이면서 간절한 어조

■ 특징

- ① 언어유희나 비유를 통해서 표현의 효과를 높임
- ②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③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고조된 정서를 드러냄
- ④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형상화함
- ⑤ 역설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 ⑥ 동화적, 비현실적 분위기로 사랑에 대한 화자의 낭만적 소망을 아름답게 부각시킴

■ 제재 : 한계령

■ 주제 : 역설적 상황을 통한 사랑의 간절함

■ 구조

- 1연 :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
- 2연 : 운명적 고립에 대한 소망
- 3연 :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고립에 대한 의지
- 4연 :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고립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
- 5연 : 사랑하는 이와 의 고립은 축복이라는 역설적 인식

▣ 해제

이 작품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폭설로 인해 한계령에 고립되는 조난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강렬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소망은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의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조난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구조를 거부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상반된 역설적 상황 인식으로서 이 시의 개성적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에서는 한겨울 폭설로 인해 한계령에 조난을 당하는 가상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보통 이러한 조난의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에 이러한 상황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시적 화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 된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해도 시적 화자는 구조의 손길을 기꺼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시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의 설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강렬한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시에 등장하는 '못 잊을 사람'은 분명히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못 잊을 사람'은 시적 화자와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를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 연에서 시적 화자가 한계령에 고립된 상황을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에 등장하는 '못 잊을 사람'은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못 잊을 사람'은 시적 화자가 짝사랑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대상이거나, 서로 사랑했지만 비극적 이별을 해야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결국 '못 잊을 사람'에 대한 다양한 설정의 가능성은 독자로 하여금 이 시를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5
산상의 노래 조지훈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높으디높은 산마루(화자의 위치, 인고의 극한적 공간)
낮은 고목(古木)(생명력을 상실한 존재, 국원을 상실한 조국)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외로움과 고독) 긴 밤(일제 강점기 어두운 현실의 지속)을
무엇(조국 광복)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조국 상실의 슬픔, 광복에의 염원이 절실함)
 ▶ 광복을 염원한 화자의 간절함

아아(영탄, 광복을 맞은 감격) 이 아침(광복)
시들은 핏줄(일제 강점기 동안 생명력이 훼손된 민족의 처지)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조국 상실의 슬픔과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했던 가슴)
은은히 울려오는(확산의 이미지) 종소리(부정적 현실의 해소, 희망과 재생의 소리).
 ▶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감격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광복을 맞이한 아름다운 현실)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내려 떨어던 셋별(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지켜왔던 광복에의 염원)아 숨으라.
 ▶ 광복을 맞이한 민족의 현실

환히 트이는 이마 우(광복으로 인한 변화된 세계, 밝음, 시각적 심상)
떠오르는 햇살(간구하던 현실의 도래, 상승의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화자의 감격,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 영탄적)
 ▶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

메마른 입술(일제 강점기 동안 생명력이 훼손된 민족의 처지)에 피가 돌아(민족적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모습)
오래 잊었던(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시 창작 등이 자유롭지 못하던 현실)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침묵의 고통에서 벗어남)
 ▶ 회복되어 가는 민족의 정기

새들 즐거이(감정 이입) 구름 끝에 노래(광복의 기쁨) 부르고(의인화)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랴.(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
 ▶ 광복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조망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화자가 있는 공간,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공간)
맑은 바람 속(1연과의 대비, 부정적 현실이 해소되고 미래에 대한 염원을 품고 있음)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광복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새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 조지훈, '산상의 노래'

*사양: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또는 남에게 양보함.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지사적, 감각적

■ 특징

- ① 비슷한 내용의 연과 행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 ③ 설의적 표현과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냄
- ④ 변형된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드러냄
- ⑤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감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함

■ 제재 : 산상의 밤과 아침

■ 주제 :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 구조

- 1연 : 광복을 염원한 화자의 간절함
- 2연 :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감격
- 3연 : 광복을 맞이한 민족의 현실
- 4연 : 민족의 앞날에 대한 기대
- 5연 : 회복되어 가는 민족의 정기
- 6연 : 광복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조망
- 7연 : 민족의 미래에 대한 모색

▣ 해제

이 시는 광복을 맞이한 시적 화자의 기쁨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하지만 시인은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민족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광복 전의 화자의 모습을 '시들은 핏줄', '메마른 술' 등으로 표현하여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 '종소리'와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광복을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또 다시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다. 과거처럼 울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선구자로서의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총 7연 25행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염원했던 과거와 해방을 맞이한 현재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과제 등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을 상징하는 '낮은 고목'에 기대어 조국 해방의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2연에서 6연까지는 해방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2연에서는 '종소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꽃다운 하늘'과 '새별'의 상징을 통해 해방의 기쁨과 광명이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4연에서 6연까지는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4연에서는 '시월상달'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예감하고 있으며, 5연에서는 '오래 잊었던 피리'를 통해 문학 창작의 꿈을 다시 지피고 있으며, 6연에서는 앞으로 노래할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다. 마지막 7연에서는 다시금 산마루에 서서 6연에서 제시한 미래의 이상향이 도래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사슴과 토끼는 /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사슴과 토끼는 먹이사슬에서 초식동물에 해당되는 짐승으로 약자에 속한다. 그들은 항상 육식동물의 공격에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부족한 먹이를 찾아서 경쟁해야 한다.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만하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암시하고 있다. 사슴과 토끼 같은 가장 약한 짐승들이 서로 먹이를 양보하는 세상, 그것은 세상의 약자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일 것이다. 시인이 꿈꾸는 해방된 조국의 이상향이기도 하다.

조지훈의 1945년 작인 이 시는 민족 해방을 위한 기다림과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 그리고 해방 후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고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는 원래 1945년에 발간된 <해방기념시집>에 실렸던 시답게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과제를 고민하는 시적 자아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제목인 '산상의 노래'는 산의 정상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해방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고양된 정신 상태에서 미래의 과제를 모색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총 7연 25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방을 기원하던 과거의 염원을 다룬 1연, 해방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2연에서 6연,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7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연에서는 해방을 위한 오랜 인고의 세월의 고통과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늙은 고목(古木)'은 국권을 상실하고 생명력이 고갈된 조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시적 자아는 그러한 고목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시 소생하기를 기원하는 내면의 갈망을 "늙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간구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긴 밤'은 국권 상실이 야기한 고통의 정도를 표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고의 세월이 오래 되었음을 표상하며, 해방을 위한 갈망 또한 가열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연에서 6연까지는 해방의 환희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시적 자아는 '종소리'가 '시들은 핏줄의 굽이굽이로 /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울려 퍼진다고 진술하면서 해방이 몰고 온 가슴 벅찬 희열과 새로운 생명력의 도약을 예찬한다. 3연에서는 '꽃다운 하늘'을 통해 해방이 몰고 온 개벽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이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음을 고백한다. 어둠 속에서 셋별을 바라보면서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던 갈망이 기적처럼 실현되었음을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4연에서 6연까지는 해방으로 인해 변화된 시적 자아의 내면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묘사된다. 4연에서 시인은 '환희 트이는 이마', '떠오르는 햇살' 등의 상승과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자아의 환희에 찬 내면 풍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월상달의 꿈'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시적 자아가 지닌 미래의 희망과 꿈을 표현한다. 5연에서 시적 자아는 오랫동안 자국어로 시를 쓰지 못했던 암울했던 시절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시를 쓰게 된 기쁨을 노래한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었다는 표현을 통해 시를 짓게 된 정황을 암시하며, '오래 잊었던 피리의 / 가락을 더듬노니'에서 새로운 문학의 창작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시적 자아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

6연은 시인이 노래할 시의 세계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새들은 즐거이 노래하고 사슴과 토끼는 서로 '향기로운 싸릿순'을 양보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노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7연에서는 그러한 세계가 결코 쉽게 도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그러한 세계를 향한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내 홀로 긴 밤을 /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라고 노래했던 시적 자아는 다시 마지막 7연에서 '내 홀로 서서 /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라고 하면서 독립된 민족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6연에서 노래했던 그러한 이상향이 도래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5 꽃덥불 신석정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태양(밝음, 희망, 광복)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광복을 위한 노력)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만 비롯하였다.

▶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쟁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터(국권을 상실한 조국)를 헤매이면서(민족 구성원의 암울한 삶, 광복을 위한 노력)

언제 참으로 그 언제(광복이 요원해 보이는 일제 강점기의 절망감 강조, 반복)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광복)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안타까움)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광복을 위한 노력 강조, 반복)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와 노력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죽음)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유랑)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변절)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전향)도 있다(①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 ② 죽음, 유랑, 변절, 전향 등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상황)

▶ 애국 투사의 죽음과 방랑, 변절, 전향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간절한 기다림의 성취) 서른여섯 해(1910-1945)가 지나갔다(한 행을 연으로 구분함으로써 선언적 의미 강화, 일제 강점기의 종식)

▶ 일제 강점기의 종식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성찰)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광복 후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

오는 봄(혼란과 갈등이 해소된 진정한 광복의 상태)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광복 후 혼란과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을 안고

그 어늬 언덕 꽃덥불(민족의 자주 독립과 화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조국)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민족 공동체 구성의 소망과 기대

- 신석정, '꽃덥불'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서술적, 비판적, 현실비판적, 미래지향적

■ 어조 : 의지적, 비판적, 회상적인 어조

■ 특징

①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 사용

- ② 반복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임
- ③ '과거-현재-미래'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및 정서의 강조

■ 제재 : 꽃뎀불

■ 주제 :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수립의 염원

■ 구조

- 1연 :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쟁
- 2연 : 조국 독립을 위한 의지와 노력
- 3연 : 애국 투사의 죽음과 방랑, 변절, 전향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 4연 : 일제 강점기의 종식
- 5연 : 민족 공동체 구성의 소망과 기대

■ 해제

1946년에 쓰인 이 시는 단순히 광복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바라보는 화자의 염려와 진정한 광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암울한 현실 상황에도 '태양'을 모시려는 온갖 노력과 간절한 염원으로 조국 광복을 이루었으나, 광복 후 심화되는 민족의 분열상은 아직 '겨울밤'이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순리대로 진정한 민족 화합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1946년의 '해방 기념 시집'에 실린 작품이다.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광복된 조국의 희망을 노래했다. 식민지 시대의 체험을 다룬 시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시 또한 '어둠과 광명'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 연의 의미를 특별히 주목할 만한데, 여기서 시인은 광복이 되었음에도 아직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시련을 겪는 당대의 상황을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고 집약하면서 장차 이루어야 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태양'과 '꽃뎀불'로 표현했다.

제2연에서 시인은 식민지 치하의 어두운 시대를 회상한다. '혈어진 성터를 헤메이면서'라는 구절은 곧 식민지 시대의 황량하고 음울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민족적 체험의 집약이다. 성(城)이라는 것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거대한 건축물임을 생각한다면, 혈어진 성터가 국권의 상실 및 민족적 시련의 비극을 은유하는 것임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 자립의 광명을 갈망하던 절실한 심정이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라는 반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어 제3연에서 시인은 지난날의 쓰라린 기억을 되새긴다.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멀리 떠나고, 어떤 이는 욕된 굴복 또는 타협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상실이야말로 어떤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네 줄의 반복형 문장들이 말해 준다.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넘어 이제 조국을 되찾은 시점에서 그러나 시인은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고 말한다. 비록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민족 국가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채 혼란과 갈등이 격화되는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는 근심스러운 시선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 국가 안에서 성취해야 할 미래를 그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과 '꽃뎀불'이라는 눈부신 이미지로 표현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사령 김수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말줄임표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활자화된 '자유'를 부각하고, 자유롭지 못한 시대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영함) 활자(자유와 정의에 대한 글이나 책으로 '벗', '그대'와 호응)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실천을 촉구함)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성찰

벗(활자, 책 속의 진리, 화자가 자신의 영이 죽어있다고 느끼게 하는 존재)이며

그대(활자, '벗'을 호칭하는 2인칭 대명사)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함, 비겁함, 소심함)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실천하지 않고 결단력 없는 삶을 치욕으로 받아들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유사한 문장의 반복으로 의미 강조)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현실의 거짓된 평화)

저 고요함(불의에 침묵하는 삶의 모습, 비겁함, 무기력함)도 이 고요함도

▶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불만족

그대의 정의(활자, 즉 책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나약함의 의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이 욕된 교외(행동이 삶이 아닌 죽음에서 나오는 공간. 진정한 행동이 펼쳐지지 못하는 공간,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및 그러한 삶이 지속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동격 의미를 지닌 보조사 '도'의 반복을 통해 부정의 효과를 강조함. 또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됨)

▶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괴감

그대(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화자의 자괴감)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자조적 반성)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자괴감
- 김수영, '사령(死靈)'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주지적, 비판적
- 어조 : 자유와 정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자아를 반성하는 '자성적 어조'
- 특징 : 일상적 어휘와 독백적 진술을 사용하여 자유와 정의가 소멸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지식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제재 : 부도덕한 현실과 지식인의 죽은 영혼
- 주제 :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 구조
 - 1연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성찰
 - 2연 :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 3연 :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불만족
 - 4연 :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괴감
 - 5연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자괴감

▣ 해제

이 시는 '죽은 영혼'이라는 뜻의 제목이 암시하듯 자유와 정의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부도덕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시인 자신의 영혼을 자책하고 비판하는 작품이다. 자유와 정의가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 사회라 할 수 없으며,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진리도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자는 '예언적 지성'으로 불리는 시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시민적 지식인으로 전락해 버린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긴다.

현실의 부도덕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는 현실과 자아 일체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그것은 지식인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고 비판과 저항의 정신이湧출(湧出)하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파악하는 현실은 자유와 정의가 상실된, 책으로만 위장되어 있는 거짓된 세계이다. 이러한 현실 세계의 부도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행동화하지 못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분노는 결국 현실과 자기 자신 모두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거짓된 현실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수반하는 것임을 아는 화자는 다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며 절망할 뿐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솔직한 자기반성의 모습을 반복,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 모두의 타협적 행동을 준엄하게 추궁함은 물론, 나아가 그들에게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 주술적 힘을 보여 주기도 한다.

▣ 이해와 감상

일반적으로 김수영의 시 세계는 정직과 사랑과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세 개념은 별개로 존재한다기보다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를 읽는 독자에 따라 정적으로 자유와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자유로써 정직과 사랑을 포괄하기도 한다.

『사령(死靈)』의 핵심어는 '자유'이다. 그런데 그 자유는 시인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적의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근대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규범 가운데 하나인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비민주적 사회라는 지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화자(시인)는 자유가 억제된 독재 정권에 항거하지 못하

는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 흔히, '예언적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작가와 시인은 독재자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해 신명(身命)을 바칠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은 독재 정권에 기생(寄生)하여 개인의 부귀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사회이다. 자유를 말하는 벗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한다. 이것은 자신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자책하는 의미로 읽힌다.

화자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은 자유와 정의가 부재한 거짓된 공간이다. 거짓된 공간은 외면적인 고요로 위장되어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따라서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수반한다. 이런 현실에 화자는 절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희망하는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사회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제1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종결되는 이 시의 결구는 화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준다. 그것은 나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현실 개혁의 운동에 앞장서자는 비판적 지식인의 솔직한 자기반성의 태도이다. 이런 자기 반성적 태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자유와 정의는 서적 속의 관념에서 현실의 가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승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나(화자)는 왜 아침 출근길(시간적 배경)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 놓은(화자가 분노하는 이유)
강아지(화자가 자신의 응졸함에 대해 스스로 꾸짖게 되는 계기, 약자)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반문을 통해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운동주 시집(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화자가 강아지에게 화를 낸 구체적인 상황)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운동주와 같이 고결함)과 화자의 현실적인 모습(응졸함) 사이에서의 괴리를 느끼고 괴로워함)
▶ 1-8행 :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에게 분노함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생명 존중)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생명을 경시↔나)와
역살잡이까지 했던 내(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위선적이고 응졸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
▶ 9-13행 : 생명의 가치 평등을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사랑, 배려, 존중, 인자함 등)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모습)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응졸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
▶ 14-17행 : 응졸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함.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사랑↔강아지에 대한 화자의 행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 관용, 너그러움 등↔강아지에 대한 화자의 행위)
운동주 시인(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인물)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육체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삶)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정신적으로 응졸함)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순례자의 마음으로 경건하고 성스럽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엿볼 수 있음)가 될 수 있을까
▶ 18-22행 :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램.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화자를 두려워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응졸함을 부각, 강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함.)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강아지보다 응졸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남.)

▶ 23-24행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함.
- 정호승,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반성적, 성찰적

■ 어조 : 독백적인 어조

■ 특징

- ①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② 의문형 표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냄.
- ③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위선적 태도를 고백함.
- ④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언급하며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줌.
- 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바람을 표출함.
- ⑥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옹졸함을 고백하여 마무리함.

■ 제재 : 강아지에게 화를 낸 일

■ 주제 : 위선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고백

■ 구조

- 1-8행 :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에게 분노함
- 9-13행 : 생명의 가치 평등을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함.
- 14-17행 : 옹졸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함.
- 18-22행 :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램.
- 23-24행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함.

■ 해제

일상에서 경험한 일을 소재로 삼아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으로,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강아지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는가'와 '-을까'로 끝맺는 질문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참회와 반성, 부끄러움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는 '운동주 시집'을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2004년 간행된 시집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수록된 작품으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배어 있다. 운동주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작가는 집 밖에서는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구두에 오줌을 싸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개새끼라고 말하며 구두를 내던졌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인간의 모순된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시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7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누가 하늘(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함)을 보았다 하는가(아무도 하늘을 본 적이 없음, 설의적 표현)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점층적, 반복적 표현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물음을 던짐. 화자가 바라는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드러냄)

내가 본 건, 먹구름(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 구속과 억압의 상황,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극복의 대상)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一生)을 살아갔다.(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온 현실)

내가 본 건(반복), 지붕 덮은

쇠 항아리(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 구속과 억압의 상황,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극복의 대상),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온 현실, 2연의 변주)

▶ 1-3연 :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부정적인 삶

뒹아라(명령형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과거에서 벗어날 노력을 촉구함), 사람들아(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민중)

네 마음속 구름(뒹아서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

찢어라(명령형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과거에서 벗어날 노력을 촉구함), 사람들아,(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민중)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찢어서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 1-2행과 3-4행이 대구를 이룸)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뒹고(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화자가 민중이 바라보고 누리기를 추구하는 대상)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공경과 두려움, 여기서는 삶이 두렵고 엄숙한 것임을 나타냄)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진정한 하늘을 찾을 때 부정적 현실에서 구원될 수 있음)

마실 수 있는 사람은

▶ 4-6연 :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 촉구

연민(憐憫)(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냄)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억압된 현실을 견디기 위한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

서럽게(부정적 현실 속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감정)

아 엄숙한 세상(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서럽게

눈물 흘려

▶ 8연 : 부정적 상황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 민중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함)

▶ 9연 :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성격 : 참여적, 현실 비판적, 격정적

■ 어조 :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 특징

- ① 대립적 시어를 사용함.
- ② 상징적 수법으로 시적 대상을 나타냄.
- ③ 직설적 표현으로 시상을 전개함.
- ④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⑤ 명령적 표현으로 민중의 행동을 촉구함.

■ 제재 : 하늘

■ 주제 :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

■ 구조

- 1-3연 :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부정적인 삶
- 4-6연 :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 촉구
- 7-8연 : 부정적 상황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현실
- 9연 :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 해제

이 시는 당시 민중들이 겪은 역사적, 사회적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한 번도 진정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이 시대의 민중들의 아픔을 알고 이러

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겪어 온 구속과 억압의 상황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의지를 북돋우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하늘'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핵심 시어로 계속 변화, 반복된다. 작품 속에서 '하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물음 속에서인데, 이 물음은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 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민족은 구속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인데, '지붕 덮은 쇠향아리'라는 무겁고 답답한 이미지의 표현이 그 구속과 억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깨우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 마음 속 구름'을 닦아 내고 네 머리 덮은 쇠향아리를 찢어 버리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인은 우리가 이런 각성의 노력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경의 자세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민족에 대한 연민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7
출린 사람 기형도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사회자(이분(그분)의 실체를 미화하여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 권력에 아부하는 자, 타락한 지식인 등을 의미, 권력자에 홀린 채 군중들을 홀리고 있는 인물)가 **외쳤다**(사회자의 행동으로 '외침→맹세→흐느낌'으로 아부의 정도가 심화됨)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타적, 도덕적인 사람으로 소개함)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끌거리는 빛이었다(이웃의 슬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소개함)

▶ 1-4행 : 권력가에 대한 소개와 옹호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사회자의 행동으로 '외침→맹세→흐느낌'으로 아부의 정도가 심화됨)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사소한 것, 대유법) 하나 심지 않았다(사리사욕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함)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이분(그분)을 과장되게 미화하고 찬양함)

▶ 5-7행 : 권력가에 대한 찬양

사회자는 흐느꼈다(이분(그분)을 소개하며 자신의 감정이 격앙됨, 사회자의 행동으로 '외침→맹세→흐느낌'으로 아부의 정도가 심화됨)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이타적인 사람이자 민중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소개함)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이분(그분)을 미화하며 군중들을 선동함)

▶ 8-10행 : 권력에 대한 미화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그분(이분)이 걸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위선적인 모습임)

군중들(권력자에게 기만당하는 우매한 민중)은 일제히(확일성)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맹목적인 추종)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군중들이 그분(이분)에게 현혹되어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

▶ 11-13행 : 대중의 환호를 받는 권력가

그때 누군가(미화된 대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권력)인가('신'을 통해 그분(이분)의 실체가 왜곡되고 미화된 것에 대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질문)

그분은 목소리(비판적인 지식인, 각성한 민중)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권력)인가('유령'을 통해 그분(이분)의 실체가 왜곡되고 미화된 것에 대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질문), 목소리가 물었다

▶ 14-16행 : 권력가의 실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

저 미치광이(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인물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취급받음)를 **끌어내**(비판이 용납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상황임),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이성을 상실하고 흥분한 민중)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관용적임을 과시하는 그분의 모습)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그분(이분)에 대한 동조, 반복을 통해 민중들의 우매함과 권력자의 절대성이 강조됨.)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그분(이분)에게 현혹된 우매한 군중)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끝내 실체를 드러내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

▶ 17-22행 : 비판 정신이 배제되는 현실과 우매한 대중의 반응
- 기형도, '홀린 사람'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풍자적, 상징적, 비판적, 서사적

■ 특징

- ① 우화적 기법으로 대상을 풍자함.
- ② 선동가에 의해 대중이 기만당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함.
- ③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실 속의 특정한 사람들을 상징함.
- ④ 극적 상황(인물, 사건)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⑤ 우의적 방식으로 모순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 고발함.
- ⑥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극중 사건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관찰자적 태도를 취함.
- ⑦ 사회자의 행동의 변화 : '외침 → 맹세 → 흐느낌(감동)'으로 아부의 정도가 점점 심화됨

■ 제재 : 지배층의 선동과 기만

■ 주제 : 지배층의 기만적인 통치 방식과 이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과 풍자

■ 구조

- 1-4행 : 권력가에 대한 소개와 옹호
- 5-7행 : 권력가에 대한 찬양
- 8-10행 : 권력가에 대한 미화
- 11-13행 : 대중의 환호를 받는 권력가
- 14-16행 : 권력가의 실체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
- 17-22행 : 비판 정신이 배제되는 현실과 우매한 대중의 반응

■ '홀린 사람'의 중의적 의미

홀리다'라는 말은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남을) 홀리게 하다'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든 '그분'을 주체로 생각할 수 있고, '(남에게) 홀림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사회자를 비롯하여 '그분'에게 감동하며 따르고 있는 '사내와 여인들'을 주체로 생각할 수 있다.

■ 인물의 상징성

- ① 사회자 → 권력자를 옹호하고 미화하며, 그 실체를 왜곡하며 그것에 아부하는 선동가
- ② 이분(그분) → 폭력을 통해 국민을 굴복시키는 독재자라기보다는 그럴듯한 명분과 교묘한 통치술로 대중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 또는 통치자
- ③ 군중들(사내들, 여인들) →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가의 선동에 이성과 비판을 잃어가는 우매한 대중
- ④ 미치광이(목소리) → 권력자의 교묘하고 부당한 통치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는 의식 있는 지식인

▣ 해제

이 시는 지배층의 위선과 그에 대해 저항할 줄 모르는 무지한 대중을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대중

을 기만하는 사회 속의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여 권력이 어떻게 미화되는지, 그 권력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회자는 권력자를 지지하는 선동가이며, 그에 의해 미화된 '그분'은 자신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자를 통해 시종일관 선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한다. 또한 '군중'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면서 획일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에 반해 '목소리'는 무지한 대중에 동조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나, 물음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미치광이'로 몰려 대중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를 통해 시인은 건전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회, 우매한 대중을 현혹시켜 권력을 강화하려는 사회를 문제 삼고 있다.

▣ 이해와 감상

무비판적 현대인의 모습과 전체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시이다. 이 시는 우화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층의 기만적인 통치 방식과 이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매한 대중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에서 최고 권력자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그를 지지하는 존재에 의해 그의 실체는 왜곡되고 미화되며, 대중들은 이에 기꺼이 현혹되어 이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로 내몰려 그 사회에서 배제된다. 이 시는 과거 독재 시절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배와 자발적인 복종에 대한 풍자로도 볼 수 있다.

흥분한(홀린) 사회자와 흥분한(홀린) 군중들, 그리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분(권력자)은 분명 이 사회의 미친(홀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지배 - 피지배의 교묘한 관계를 구축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 인간은 항상 있는 법이다. 바로 '목소리(미치광이)'의 주인공이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사회야말로 지극히 비도덕적인(미치고 홀린) 사회인 것이다.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 제시가 봉쇄되는 집단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8
종소리 박남수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나(종소리를 의인화한 시적 화자)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종소리를 구속하고 있는 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종소리, 종소리의 확산을 자유로운 새의 비상으로 표현함, 자유의 표상)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종소리)이 되어

하나의 소리(종소리)가 되어.

▶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인종(忍從)(묵묵히 참고 따름. 억압과 구속을 포함)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1연의 '청동의 표면'과 연결되어 종의 표면 자체를 의미함, 종소리를 구속하는 억압을 의미)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자유로운 종소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에서.

▶ 억압에서 벗어나는 종소리

나(종소리)는 바람(종소리 확산의 매개물)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종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종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종소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가 된다.

▶ 자유롭고 아름다운 종소리

먹구름(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세력)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종소리, 천둥이 칠 때 나는 소리, 부정적 억압에 대한 저항, 자유의 의지)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종소리)이 된다.(종소리의 확산을 통한 자유의 의미 확산, 공감각적 이미지, 청각의 시각화)

▶ 확산의 의지를 담은 종소리

- 박남수, '종소리'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 성격 : 주지적, 상징적, 역동적, 감각적

■ 어조 : 다소 격양된 남성적 어조

■ 특징

- ①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 ②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함.
- ③ 자유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종소리'로 구체화함.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자유를 향한 비상과 확산을 드러냄.

■ 제재 : 종소리

■ 주제 : 종소리로 환기하는 자유의 확신과 의지

■ 구조

- 1연 :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 2연 : 억압에서 벗어나는 종소리
- 3연 : 자유롭고 아름다운 종소리
- 4연 : 확신의 의지를 담은 종소리

▣ 해제

이 시는 종소리를 화자인 '나'로 의인화하여, 억압적 현실에서의 오랜 인종 끝에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신념을 바람을 타고 퍼지는 종소리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종소리는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이라는 억압적 현실에 갇혀 있다가 하나의 '울음'과 '소리'가 되어 청동의 표면을 떠난다. 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들의 '푸름'과 꽃의 '웃음'을 되찾아 주고, 천상의 '악기'를 울리게 하여 자유, 해방, 환희를 확산시킨다.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인 '먹구름'이 깔려도 종소리는 오히려 '뇌성'이 되어 더 넓은 곳으로 흩뿌려진다. 이는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이해와 감상

박남수의 '종소리'는 박남수의 후기 대표작으로 이미지에 의한 표현을 중시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탐구한 주지시다.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과 확신을 남성적, 역동적 심상으로 노래하였다. 관념의 표상으로 인식되기 쉬운 '종'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도 현대적 지성과 융합된 세련된 통일체를 이루었다.

박남수의 '종소리'는 종소리를 의인화하여 '나'로 설정하고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과 확신을 노래한 작품이다. 아직 울리기, 전의 종을 무겁고 어두운 감옥 혹은 억압으로 보고, 그 종에서 울려나는 종소리를 자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1연에서는 종소리를 시적 화자인 '나'로 의인화시켜 표현했다. '나는 떠난다'라는 표현은 종소리가 종에서 울려 나가는 모습을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종소리는 '나'에서 '새'로, 또 '광막한 하나의 울음'으로, '하나의 소리'로 표현된다. 여기서 '새'는 자유의 표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울음소리로 아득하게 멀리 퍼져나간다. 2연에서는 그 멀리 퍼져 나가는 자유를 이제까지 구속해 온 '인종(忍從)'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청동의 벽 속 칠흑의 감방은 이제까지 자유를 구속해 온 공간이다. 3연에서는 이러한 구속을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펼치는 부분이다. 종소리인 '나'는 '바람을 타고', '푸름'이 되고, '웃음'이 되고, '악기'가 된다. 4연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하려는 '먹구름'과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하늘의 꼭지'는 천상의 끝으로, 횡포에 저항하는 정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말인 듯하다. '먹구름'과의 대결 속에서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그것을 이겨 내고 종소리는 곱고 부드러운 소리로 흩어져 퍼진다.

박남수의 시는 본디 사상이나 윤리 같은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관념은 깊이 감추어지고, 드러나는 것은 참신하고도 낯선 이미지들이다. 이미지가 거느리는 배경이나 언어 표현의 암시성이 그의 시에서는 중요시된다. 이 시도 예외는 아니다. 참신하고 역동적인 심상들이 출렁이고 있다. '나'는 '종소리'를 의인화한 것인 바, 오랜 인종(忍從) 끝에 역사의 질곡을 박차고 나가는 시인의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과 신념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다.

소리가 청동의 벽에 갇혀 있는 동안, 즉 종이 울리지 않는 동안은 칠흑의 감옥과도 같다고 화자는 말한다. 오랜 인종(忍從) 끝에 '나'는 '진폭의 새'가 되고, '울음'이 되고, '소리'가 되어 청동의 표면을 떠

난다. 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들의 '푸름'을 되찾아 주고, 꽃의 '웃음'을 되찾아 주고, 천상의 '악기'를 울리게 하여 역사의 질곡에 갇힌 세상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한다. 소리가 청동의 벽에서 풀려나는 순간 그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 이 시에는 담겨 있다고 하겠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8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이다음에 나(화자)는 고양이(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리라.(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을 고양이의 상징적 의미로 드러냄. 윤희 사상)
윤기 잘잘 흐르는(건강한 생명력)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을 구체화함,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사뿐사뿐(음성 상징어) 뭉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직유법)
공처럼 둥굴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화자가 바라는 삶의 지향을 구체화함,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나는 뒷마루에서 즐지 않으리라.(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인간의 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고양이의 일반적인 생활과 달리 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부정 서술어 반복, 의지 강조)
가시덤불 속(야생)을 누벼 누벼(반복, 간절함 강조)
너른 벌판(야생)으로 나가리라.(화자의 의지)
 거기서 들쥐(야생의 존재)와 뛰어놀리라.(‘-리라’ 반복)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음성 상징어)
참새 때(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덮치리라.(‘-리라’ 반복)
 그들은 놀라 후닥닥(음성 상징어) 달아나겠지.
아하하하(음성 상징어, 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야생의 삶에서 느끼는 기쁨)
폴짝폴짝(음성 상징어) 뒤따르리라.(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야생의 삶에서 느끼는 기쁨, 참새를 먹잇감이 아닌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함, ‘-리라’ 반복)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리라’ 반복)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고양이로 태어난 시적 화자가 야생의 삶에서 참새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 ‘-리라’ 반복)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포식의 대상이 아닌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지향함, ‘-리라’ 반복)
 ▶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소망함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자유를 찾으려는 고양이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옴, ‘-겠지’ 반복)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음, 안락한 일상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함.)
어둠을 핥으며 남가리를 찾으리라.(안락한 삶 대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선택, ‘-리라’ 반복)
그 속은 아늑하고 짙단 냄새 훈훈하겠지.(야생의 삶에서 찾은 안락함, ‘-겠지’ 반복)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고단한 삶에 처하더라도 자유를 추구하는 고양이의 고결한 삶을 상징함, '-겠지' 반복)

혹은 거센 바람(잠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 시련)과 함께 찬비(잠자리를 위협하는 장애물, 시련)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활유법)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자유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

나는 꿈을 꾸리라.(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자유로운 삶에 대한 의지, 희망적 태도, 도치법)

▶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소망함.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낭만적

■ 어조 : 의지적인 어조

■ 특징

① 시적 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냄.

② 특정한 어미('-리라', '-겠지' 등)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제재 : 고양이

■ 주제 :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

■ 구조

▪ 1연 :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소망함

▪ 2연 :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소망함.

▣ 이해와 감상

1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인들은 대부분 일상성을 벗어난 이미지로 기억되곤 한다. 우선 일반인들이 기억할 것으로 짐작되는 시인들의 이미지로는 특히나 김수영 류의 썩은 얼굴과 이상 류의 비현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천상병 류의 기이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드물게는 박인환 류의 멋쟁이가 있었으나 역시 당대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상적인 범주에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성질은 못된다고 본다.

이렇게 시인들의 이미지는 비일상성 속에 있었고,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시인은 뭔가 다르고, 그 '다름'의 하나가 바로 외모나 이미지라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지금에야 시인들도 너무나 일상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며, 고전적 의미로서의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80년대만 해도 시인의 이미지는 뭔가 특별한 것으로 기억하던 차였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황인숙 시인의 이미지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범하고 세련됨. '어라~ 전혀 시인 같지 않아'. 이것이 황인숙 시인에 대한 내 첫 느낌이었다. 더구나 '고양이'를 소재로 시를 쓰는 시인이란니... 이런 인식이 그 뒤로 쭉 황인숙 시인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주요한 원인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뒤로 황인숙 시인의 초창기 시집을 제외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성실한 독자가 아니었거나 황인숙 시인이 그 뒤로 주목받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둘 모

두일 수도 있었다.

2

근래에 대중가요로<낭만 고양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낭만 고양이 / 체리필터

내 두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신 생선 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거예요(더 자유롭게!)
 거미로 그물쳐서 물고기 잡으러

이 노래에 나오는 낭만적인 고양이의 모습은 황인숙의 시에 등장하는 낭만 고양이와는 서로 다르지 않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에서는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겨 있다. 이 고양이는 지은이의 또 다른 분신이 아니겠는가.

80년대 신춘문에 시의 특징은 이처럼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70년대의 틀을 벗어난 다양성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를 읽은 즐거움, 그리고 신춘문에 시도 '명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가 또한 80년대의 시편들이라고 본다.

이 작품은 신춘문에 시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즉, 고단한 의미 유추가 아닌 즐거운 시 읽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준 작품이라고 본다.

문학의 창작과 해석은 지은이와 독자의 체험에 많이 의존하는 듯싶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데자키 오사무'의 애니메이션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홉킨스가 데리고 다니던 짐승이 생각한다. 아마도 새끼 표범이었던 것 같은데, 바람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리던 것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물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작품의 주요 캐릭터인 고양이가 황인숙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고양이를 등장시킨 유명한 작품으로 이미 1923년에 창작된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물론 이장희의 시에 등장하는 고양이와 황인숙의 시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서로 그 태생이 다르다. 이장희의 고양이가 정적(靜的)인 캐릭터로 비유의 대상이라면, 황인숙의 캐릭터는 동적(動的)이며 행동의 주체가 된다.

여러 가지로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보수적'인 신춘문에 시에 활력과 자유, 그리고 상상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가장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9 풍장 황동규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내(화자) 세상 뜨면(죽으면) 풍장(시체를 자연에 내버려 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례 방식, 존재의 소멸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시켜 다오(화자의 바람,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자세)
섭섭하지 않게

웁은 입은 채로(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죽기를 소망함)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삶의 시간 안에 존재함, '전자시계'는 물질문명의 상징)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죽기를 소망함)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풍장이 우리나라의 서남해 지방의 장례 풍습임을 보여줌)

검색이 심하면(군사 독재 시대를 지칭하는 시대적 상황)

곰소뜸에 가서(풍장이 우리나라의 서남해 지방의 장례 풍습임을 보여줌)

통통배에 옮겨 실어 다오(‘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 풍장에 대한 염원과 준비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현실의 공간이 오히려 억압적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냄.)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의인법)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자신을 옥죄인 굴레로부터 해방됨.)

무인도(물질문명과 단절된 공간, 진정한 자유를 위한 공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계절적 배경과 축약적 이미지를 통해 '풍장'의 분위기를 나타냄.)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자신을 옥죄인 굴레로부터 해방됨.)

손목시계 부서질 때(삶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남.)

남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시간과의 단절, 세상과의 이별 암시)

바람(생명을 순환시키는 존재)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소재)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특별히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살을 말리게 해 다오(육신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남, 죽음에 대해 초연한 자세, '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물질의 구속)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물질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라는 화자의 바람, '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 존재의 소멸로 이루는 풍장의 과정

바람 이불처럼 덮고(풍장의 모습을 표현, 직유법)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세속적 화려함이나 종교적인 의미와도 상관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화자의 소망)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풍장의 모습을 표현, 직유법)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자연 속에서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줌.)

바람(생명을 소멸시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과 놀게 해 다오.('다오'의 반복, 화자의 바람 강조)

▶ 자연과 합일로서의 풍장의 의미

- 황동규, '풍장'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긍정적, 낙관적

■ 어조 : 담담하고 비장한 어조

■ 특징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죽음에 대한 화자의 초연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제재 : 풍장

■ 주제 : 자연 속에서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

■ 구조

- 1연 : 풍장에 대한 염원과 준비
- 2연 : 존재의 소멸로 이루는 풍장의 과정
- 3연 : 자연과 합일로서의 풍장의 의미

▣ 해제

이 시는 풍장에 대한 염원과 그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비장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풍장은 우리나라 도서 지방이나 북방 유목 민족 등의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사(葬事) 방법으로, 시신을 그냥 버려두어 비바람 속에서 저절로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적 화자가 매장이나 화장과 같은 통상적인 장례 의식을 마다하고 이러한 풍장을 염원하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내는 구조적 모순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세속적 타락으로부터 순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모든 존재를 소멸시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자연의 풍화 작용인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함께 놀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적 화자는 죽음을 인위적인 꾸밈도 종교적인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는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로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시적 자아가 죽음을 가정하고, 자신이 죽은 뒤 풍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시적 자아의 당부이다. 죽음이란 단지 자연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슬퍼할 것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신비화하거나 신성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 시적 자아가 당부하는 요체인 셈이다. 이 시에서 '바람'은 모든 존재를 소멸시켜서 다시금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자연의 풍화 작용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죽음에 덧붙여지는 인간적

인 의미를 철저히 거부하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저 담담하고 객관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주검이 바람 속에서 풍화되어 가는 과정마저도 '바람'과 노는 것이라고 다소 장난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풍장을 통해 자신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믿음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죽음관(觀)과 죽음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태도와 어조는 우리 시의 전통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삶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시인의 진지한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9
빠삐용-영화 사회학 유하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평소와 다른 장면) 표범 한 마리(화자와 대비되는 대상)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간접 화법)
수재(물난리)에 수재(獸災)(표범 한 마리)가 겹쳤다고 했지만(언어유희),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탈출한 표범과 다른 태도를 지닌 대상)의 우울한 눈빛(현실에 무기력한 모습)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표범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빠삐용이 추구했던 가치)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자유를 향한 빠삐용의 의지를 보여줌)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동물원의 우리가 대조되는 공간, 자유의 공간이지만 위험한 곳)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자유를 포기하면 안주할 수 있는 현실)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빠삐용의 친구)
로 탈출한 의지를 잃고 섬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함, 남은 세 마리의 표범을 비유)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화자도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빠삐용, 난 여기서 갑자기 심으며 살래(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드가의 태도)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성찰)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드가에게 동질감을 느낌)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시간의 경과)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자유를 택한 결과)
거봐, 결국 죽잖아!(자기 위안,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화, 안도감, 자기 합리화)
 ▶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떠올리는 영화 '빠삐용'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자유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 현실에 갇힌 자신에 대한 성찰
 - 유하, '빠삐용-영화 사회학'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반성적, 성찰적, 비판적
- 정서와 어조 : 연민, 자조
- 특징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② 화자는 '드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③ 연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모습이 현실에 안주하는 '드가'의 모습과 닮았다는 인식에 이룸
 - ④ 영화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에 접목시켜 주제를 강조함

⑤ 보여주기를 통해 독자가 주제의식을 파악하게 하는 수법

■ 제재 : 자유를 찾아 탈출한 표범과 빠삐용

■ 주제 : 무기력하게 현실에 순응하는 삶에 대한 비판과 성찰

■ 구조

- 1연 :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떠올리는 영화 '빠삐용'
- 2연 : 현실에 갇힌 자신에 대한 성찰

▣ 해제

이 시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하여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우리를 탈출하다 사살당한 표범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문득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여 어느샌가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슬픈 모습을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 있는 표범을 통해 발견한다. 자유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드가'의 모습이 결국 화자의 모습임을 깨닫는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영화 사회학'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자화상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대공원을 탈출한 표범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에서 화자가 주목한 것은 탈출한 표범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 있는 표범 세 마리로, 이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자유를 잃어버린 영화 속 '드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화자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화자의 이러한 깨달음은 '텔레비전'이라는 우리에게 갇혀 자신의 생각마저 지배당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 영화 사회학(film sociology)

일반적인 사회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사회학은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한 나라의 사회 구조는 영화의 제작, 배급에서 관객의 관람행위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화사학자들은 영화의 사회적 기능을 순수한 선전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가치 확립의 기능,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영화사를 서술해 나가는데, 영화사회학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정치적 반영 및 효과와, 뉴스나 정보 등의 교육적 기능, 그리고 대중오락으로서의 기능에 관하여 연구한다. 영화사회학 연구의 기원은 발라즈의 <시각적 인간과 영화문화>로 본다. 발라즈는 이 글에서 영화에 의해 새로운 시각적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묘사하였으나,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표현이 언어로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현할 수 없었던, 따라서 좁아졌던 인간 정신의 세계를 20세기의 영화를 통해 회복,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비평가 발터 벤야민은 1936년에 발표한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사진과 영화를 복제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복제예술이란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며,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예술로, 과거 지배계급에 독점적이었던 예술의 향수를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시켰으나, 예술의 질적인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영화가 지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사회와 인간의 사유방식에 연관시켜 설명한다. 즉, 소설은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유방식에 대응하는 장르이고, 영화는 고대의 집단적 사유방식에 대응하는 장르로 보는 것이다. 근자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측면의 영화사회학은 영화산업과 그

에 관련되는 자본, 정치, 대중의 관계와 영화가 사회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0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신경림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산비알(느티나무들이 나서 자라는 공간적 배경)*에 돌발에 저절로(자연의 순리대로) 나서
▶ 1행 :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적 배경
저희들끼리(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보살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케 함)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서로 부대끼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갈등, '-고' 반복)
시든 잎(아픔) 생기면 서로 떼어 주고(위로, '-고' 반복)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살아가면서 갈등을 견디고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위로하고 돌봐 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형상화함, '-고' 반복)
끌어안기도(포용) 하고 기대기도(의지) 하고(포용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 '-고' 반복)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늪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 주기도 하고('-고' 반복)
세월에 굶고 터진 상처(아픔, 고통)는
긴 혀로 핥아 주기도 하다가(병들고 아픈 곳을 서로 보듬어 주고 치료해 주는 삶의 모습)
▶ 2-13행 : 더불어 살아가는 느티나무들의 모습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것들, 삶의 지혜 등)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의인화)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음성 상징어)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환상적이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배경)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인간이 사는 곳)에 뿌리는(좋은 것을 공유하려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함.)
우리 동네 늪은 느티나무들(복수형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모습 강조, 명사형 종결로 여운 형성)
▶ 14-20행 :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산비알 : '산비탈'의 방언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유적, 예찬적, 관조적
- 특징
 - ① 시적 대상을 인격체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줌
 - ② 느티나무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열거하며 시상을 전개함.
 - ③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함.
 - ④ '-고', '-는' 등의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림.

- 시적 화자 : 서정적 자아(나 : 느티나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이)
- 화자의 정서(태도) : 동네 느티나무들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 시적 상황 : 느티나무들을 의인화하여 인격체로 수용함.
- 제재 :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주제 : 공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
- 구조
 - 1행 : 느티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적 배경
 - 2-13행 : 더불어 살아가는 느티나무들의 모습
 - 14-20행 :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느티나무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에서 발견하는 서로 의존하면서 상생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느티나무들은 함께 자라면서 때로는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아픈 곳을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며, 늙어서는 '세월에 굼고 터진 상처'를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한다. 또한 느티나무들은 오랜 삶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온 고을'에 뿌려 풍요로운 경험과 지혜를 모든 생명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공생하고 나누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가는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0 들길에서 마을로 고재종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해거름(시간적 배경), 들길(공간적 배경)에 선다. 기업기업 산 그림자 내려오고(해가 지는 모습) 길옆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벼 끝으로(화자의 시선 이동)** 올라가 수정 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자연의 모순 것에 의미가 있음)**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썩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썩독새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벼들은 **쭈쭈쭈쭈(의태어를 통해 생동감과 운율감을 드러냄)**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삼을 씻는 **노인(화자의 시선 이동),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노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붉새가 북새질을 치니('붉새'는 '노을'의 방언. 붉게 노을이 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내일도 짹짹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강한 생명력),**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감각적 이미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선명히 드러냄.).**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화자의 시선 이동)**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저녁을 준비하는 농촌의 모습)**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후각적 심상)**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화자의 시선 이동)**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청각화)**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찌려고 웬 **썩국새 울음(청각적 심상)**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썩국새의 울음이 화자의 서러움을 불러일으킴)** 하지만 이제 하루 어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하루를 보람 있게 마무리한 후의 여유를 느끼고자 함.)**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시간이 흘러 저녁이 깊어짐.)**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그 인생은 스스로가 만들어 감.)**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감각적 이미지)**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려.(들길에서 마을로 걸어가며 느낀 정서가 인생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음. 화자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 핵심 정리

- 갈래 : 산문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서정적, 산문적
- 어조 : 담담하고 고백적인 어조
- 특징
 - ① 산문적 진솔로 경치와 서정을 담담하게 서술함.
 - ②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 ③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들판과 농촌 마을의 모습을 표현함.
- 제재 : 농촌 마을
- 주제 :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인생에 대한 성찰
- 구성

- 해거름~자란다 : 망초꽃을 보며 벼들이 자라나는 생명력을 느낌
- 이때쯤~푸르러진다 : 삽을 씻는 노인을 보며 짹짹한 내일을 예상함
- 이쯤에서~고즈넉하겠다 : 마을 쪽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를 보며 뿌듯함을 느낌
- 길은~밝히리 : 길은 어디서 열리고 노래가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함

■ 해제

이 시는 들길과 마을의 모습을 통해 우리 농촌 사회가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향토성과 서정성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시선 이동을 중심으로 '들길'에서 '마을'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들길의 풍경과 벼가 푸르러 가는 들녘의 생명력,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화자의 시선은 노인에게로 이동하여 하루의 농사일을 마무리한 노인과 택배기 한 잔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심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원적 공간은 향토 문화의 보고 같은 곳으로, 시인은 이를 단순히 경관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경관 속에 온전히 담겨 있는 자연의 이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우리네 삶의 한 전형의 창조를 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날이 저물고 있는 '들길'의 풍경을 묘사하고, 농촌 마을의 전원적이고 토속적인 정취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단순히 들길이 저물고 있다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망초꽃'들이 흔들리는 모습과 해가 저물어 점 속에 사라지는 모습 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묘사하여 마치 실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어지는 농촌 마을의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삽을 씻는 노인'과 '벼들의 모습', '또랑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시인은 시각, 청각, 후각 등 생생한 감각을 사용하여 농촌 마을의 저녁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는 산문적 울조를 가지고 있지만 군데군데 사용한 반점과 온점을 통해 맺고 이어짐의 운율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러한 산문의 형식은 운문 형식에 비해 저녁 풍경의 모습을 담담히 담아내고 나열하는데 더 효과적인 면도 있다.

■ 산문시

형식상으로는 거의 산문이면서 내용으로는 시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시의 한 종류로서, 운(韻)이나 리듬을 갖지 않는 산문체의 서정시를 말한다. 정형시처럼 외재율을 갖거나 혹은 자유시처럼 내재율을 현저히 형성하고 있지 않으나 미묘하고 독특한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자유시와 행과 연의 구분을 통해 내용을 분절하고 음운을 획득하는 것에 비하여 산문시는 대략 행과 연의 구분 없이 줄글로 써졌다는 데 그 형태상의 특성이 있다. 20세기 초 한국 시에서는 한용운의 시들에서 그 형태가 많이 보이며 현재에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허수경의 '홀로 가는 먼 집' 등 다양한 작품들이 산문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보들레르, 투르게네프 등이 산문 시인으로 유명하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히덕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선입견을 가지고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복숭아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 화자가 가졌던 편견과 오해, 경어체 사용, 고백적 어조)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선입견을 가지고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복숭아나무에 대해 느꼈던 화자의 거리감)
멀리로 멀리로만(반복, 대상에 대한 거리감 강조) 지나쳤을 뿐입니다(선입견으로 인한 화자의 행동)
흰 꽃과 분홍 꽃(선입견을 가지고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 사이에 수천의 빛깔(복숭아나무의 본질적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화자의 깨달음, 인식의 변화)
눈부셔 눈부셔(반복,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것을 강조) 알았습니다(반복, 화자의 깨달음 강조)
피우고 싶은 꽃빛(꿈)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복숭아나무를 이해하려고 함)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꿈만 좇느라)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꿈이 있어서, '수천의 빛깔'을 지닌 복숭아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됨, 대상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함, 거리감이 사라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복숭아나무를 이해하려는 화자의 태도 변화,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됨,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림)
▶ 복숭아나무 대한 화자의 편견과 이해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꽃잎이 다 떨어졌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잎이 떨어진 복숭아나무, 의인법)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화자와 복숭아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교감을 이루는 공간)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대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도치법)
▶ 복숭아나무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 나히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고백적, 비유적, 여성적
- 어조 : 여성적이고 독백적 어조
- 특징
 - ① 경어체 사용으로 고백적인 어조를 유지함.
 - ②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로 표출.
 - ③ 타인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타인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형상화함.
 - ④ 복숭아나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의미 체계를 획득.
- 제재 : 복숭아나무

■ 주제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 구조

- 1연 : 복숭아나무 대한 화자의 편견과 이해
- 2연 : 복숭아나무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복숭아나무라는 대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처음에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나 많은 마음을 가져 사람들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지나치기만 한다. 하지만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은 후 그 그늘 속에 들어가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데 복숭아나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그늘은 화자와 대상인 복숭아나무 사이의 완벽한 이해와 조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라는 텍스트에 대한 화자의 해석 과정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지나치기만 한다. 둘 사이의 만남이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겹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은 화자에게 그늘은 더 이상 이질적인 대상이 아니며 그 그늘 속에 들어가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아의 질적인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에서 복숭아나무는 어떤 사람과 비유되어 있다. 그것은 첫 행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물이나 복숭아나무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사람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 이야기가 된다. 화자는 복숭아나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자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 색깔이 아닌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마도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즉 나무 그늘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번덕스러움과 까다로움을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자는 자신이 그 사람과 멀리 지나치기만 했을 뿐 어떤 마음의 교류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눈부신 빛깔 때문에 그 나무가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그 수천의 색깔들이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다. 두 가지 색깔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은 화자의 선입견에 의한 해석이다. 복숭아나무의 눈부신 빛깔을 보는 순간 화자는 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복숭아나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복숭아나무가 수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피우고 싶은 빛깔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둘 사이의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화자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그 마음을 읽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멀기만 했던 대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흩어진 꽃잎들", "저녁이 오는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이 시의 인물은 청춘을 다 보낸 노년의 인물로 형상화된다. 시인은 그 그늘 아래 쉬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본다. 복숭아나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그늘은 이제 즉 화자와 복숭아나무로 형상화된 인물 사이의 완벽한 이해와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11
등꽃 아래서 송수권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할껏 구름의 나들이(의인법)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넉줄져 뻗는 것이(등나무는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비유함, 등나무를 관찰하는 데서 시상 전개가 시작됨.)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독자의 호기심 자극)
철없이 주걱주걱(음성 상징어) 흐르던 눈물(과거형으로 과거 자신의 철없이 삶을 대하던 태도)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직유법) 소리를 내고(삶의 비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등꽃의 색깔 → 슬픔과 기쁨이 한데 뒤섞임)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직유법)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등나무의 줄기가 여러 가닥 꼬여 있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음을 깨달음, 추상적 관념인 감정을 시각화함.)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깨달음의 매개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등꽃 송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음)
 ▶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 정서를 느낌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동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조화와 화해를 이룸)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등꽃, 삶의 아름다운 결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등나무 줄기가 꼬여 동치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 내가 조화롭게 이루는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깨닫게 됨.)
 ▶ 등꽃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음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활유법)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등꽃 송이를 시각적 이미지에서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 아름다운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 화자가 발견한 등꽃 송이의 아름다움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비유적, 성찰적
- 정서 및 태도 : 교훈적
- 특징

- ① 등꽃 송이를 보며 얻게 된 화자의 정서와 깨달음을 노래함.
- ②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냄.
- ③ 자연물을 활용해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함.
- ④ 다양한 심상을 통해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함.
- ⑤ 의태어와 비유법을 사용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함.
- ⑥ 설의법을 통해 화자가 느낀 삶의 의미를 강조함.

■ 제재 : 등나무와 등꽃

■ 주제 : 등꽃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 구조

- 1연 :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 정서를 느낌
- 2연 : 등꽃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음
- 3연 : 화자가 발견한 등꽃 송이의 아름다움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등나무'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어느 봄날 넉쿨져 있는 등나무의 '등꽃송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또한, 흔들리는 등꽃송이에서 눈물이 부서진 구슬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진 지등(紙燈)의 불빛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등나무의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동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